

고양보호관찰소

○ 매체: 전국 매일신문 등 3개 매체(2026. 8. 7.)

○ 제목: 고양보호관찰소, 복지기관 연계 맞춤형 사회봉사 확대

매일신문

고양보호관찰소, 복지기관 연계 맞춤형 사회봉사 확대

고양보호관찰소, 복지기관 연계 맞춤형 사회봉사 확대

임정일기자 | 승인 2026.08.07 12:22 | 댓글 0

| 취약계층·시설 정비 수요 발굴...사회봉사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고양보호관찰소, 복지기관 연계 맞춤형 사회봉사 확대

법무부 고양보호관찰소는 대화노인복지관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시설 환경 정비, 각종 복지사업 보조 등 지역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봉사 수요를 공유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성과 복지관별 업무 수요를 연계해 봉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고양보호관찰소와 복지기관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인력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남중 고양보호관찰소장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보호관찰소는 올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모두 13건의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2명을 지원했다.

사회봉사 인력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보호관찰소를 통해 국민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